

오월 품은 세 친구의 표류기

극단 짝지, '세 친구_기동타격대'
30일-5월2일 민들레극장 무대

오월을 피해 떠난 여행이 결국 그
날의 기억으로 되돌아온다.

마당극적 해학으로 풀어낸
5·18의 상처와 생존 서사



웃음과 해학 속에 묻어둔 상처를 끌어올리는 연극 '세 친구_기동타격대'가 관객과 만난다.

극단 짝지는 오는 30일부터 5월2일까지 민들레극장에서 연극 '세 친구_기동타격대'를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광주인권평화재단의 '풀뿌리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작품은 1980년 5월,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기동타격대' 세 친구의 현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인물들이 노년의 시점에서 다시 그날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세월이 흐른 뒤, 해마다 찾아오는 오월의 기억을 피해 도망치듯 여행을 떠난 이들은 여기저기 못한 폭풍우로 무인도에 고립된다. 웃고 떠들던 여행은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즐거리는 무인도라는 극한의 상황 속 점차 드러나는 인물들의 내면을 따라간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해양 쓰레기를 뒤적이고, 약과 술에 의지해 버티는 이들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그들이 짊어져 온 삶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준다. 고립된 공간에서 되살아나는 1980년 5월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트라우마로 작동한다.

특히 작품은 '조난타격대'라는 설정을 통해 과거의 영웅적 서사를 현재의 현실과 교차시키며 기억의 방식과 생존의 의미를 되묻는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기억을 견디는 시간이 맞물리며,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도 점차 드러난다.

이 작품은 5·18민주화운동을 과거의 사건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무인도라는 설정을 통해 당시의 상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담담하게 드러내며, 비극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연대의 가능성을 짚어낸다. 사건의 재현보다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연출은 마당극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학과 리듬을 살렸다. 관객과 호흡하는 배우들의 연기, 능청스러운 대사, 몸짓 중심의 표현은 무거운 주제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오랜 시간 현장을 누빈 배우들의 내공이 더해져 웃음과 긴장이 교차하는 무대를 만들어낸다.

김호준·김정훈·정병인·김은숙이 출연진으로 나서며 극작은 김은숙, 연출은 김호준이 맡았다. 음악 박성인, 조명 정예진, 안무 김신민, 영상촬영 임성엽, 사진촬영 조범희, 음향 이단비가 참여했다.

극단 짝지는 2015년 전통연화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마당극 배우들이 모여 창단한 단체다. 전통 형식을 토대로 현대적 감각과 실험을 결합하며,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을 지향해왔다.

공연은 4월30일과 5월1일 오후 7시30분, 5월2일 오후 3시 총 3회 진행된다. 예매문의 010-6627-9097. /최명진 기자



최철 시립오페라단 감독, '오페라 오디세이' 출간

최철(사진)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두 번째 저서 '오페라 오디세이 - 푸치니, 100년의 고독을 넘어 불멸의 선율로-' (평민사)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푸치니의 주요 오페라 12편을 중심으로, 음악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인문학적 시각에서 작품을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다. 오페라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나 향유할 수 있는 예술로 풀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

책은 입문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해설서로, 작품 이해를 돕는 길라잡이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푸치니가 활동했던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삶을 함께 조명하며, 당대 최고의 흥행사로 불린 그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신간 '오페라 오디세이'는 알라딘과 네이버 도서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한국 가곡·오페라 아리아, 한 무대에...

(사카메라타전남, 내일 광주예당 대극장

한국의 서정과 유럽 오페라의 정열이 한 무대에서 교차하는 공연이 광주에서 열린다.

(사카메라타전남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아름다운 한국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우리 민요와 한국 가곡, 그리고 이탈리아·프랑스·독일 오페라 아리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이 지닌 공통의 정서를 들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대는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정환호의 '꽃 피는 날', 윤용하의 '보리밭' 등 한국적 정서가 담긴 곡들이 펼쳐진다.

여기에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송', 비제 '카르멘' 중 '여러분의 건배에 잔을 돌려 드리겠소',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중 '인제나 자유롭게' 등 주요 아리아가 더해지며 공연의 폭을 넓힌다.

민요가 공동체의 기억과 정서를 잇는 노래라면, 오페라 아리아는 사랑과 운명, 갈등과 희망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음악이다. 이번 공연은 이 두 음악 세계를 한 자리에서 조명하며, 관객에게 서정과 열정이 교차하는 감상의 흐름을 제시한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추진한 2026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단체인 (사카메라타전남이 광주예술의전당과 협력해 마련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프로그램 구성 전반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지휘는 박인욱이 맡고 테너 강동명·김요한, 바리톤 공병우, 소프라노 김희정·나혜숙·이결·윤한나가 무대에 오른다.

한편 (사카메라타전남은 광주와 전남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연주 단체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공연을 기획하며 지역 민간 오케스트라 활성화와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대학' 개설

한국 불교미술 주제 100명 모집

5-9월 넷째주 수요일 강의·답사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8일 "박물관대학 '금빛 고요: 한국 불교미술을 거닐다'를 오는 5월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한국 문화유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호남지역 특유의 불교미술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5-8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회차인 9월에는 호남지역 사찰을 참가자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는 답사로 진행된다.

강의는 분야별 불교미술 전문가들이 맡는다. 첫 강의는 천득업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의 불교건축과 불탑'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유근자 순천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불상'을, 김정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의

불교회화'를 주제로 강의한다.

마지막 강의는 최인선 순천대학교 명예교수가 '호남지역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지역적 특색을 집중 조명한다.

9월9일 개최되는 답사는 황호균 광주시 문화유산위원과 함께 화순 쌍봉사와 운주사 등을 답사하며 강의를 통해 익힌 불교미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5월1-20일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이부호 역사민속박물관장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대학은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 삶의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31번째 개최되는 이번 박물관대학은 한국 불교미술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보다 깊이 있게 향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